

총선과 대선 해 - 정치 발전 위한 불교의 역할

# “패거리 만들지 말라”...공정 선거 앞장서자

2012년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두 번의 큰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에 대구에서 개최된 범불교대 대회에 참여한 스님들이 정치권의 종교편향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불교는 언론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전통문화보존을 이유로 산문을 폐쇄하면서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었고, 불교인 종교평화선언 추진이 많은 내부 갈등과 논란을 겪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실시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총무원을 예방하고 다양한 불교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연말에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범문 스님과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발언이 세간에 화제를 모으면서 두 스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언론에 보도됐다.

산중 사찰의 이미지가 먼저 연상될 만큼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불교와 스님들이 정치적 사건과 연계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 모은 것이다. 그만큼 불교의 사회적 활동이 다양해졌고,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두 번의 대형 선거가 예고된 올해, 불교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치 발전을 위한 불교적 역할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성철 스님도 간접적 사회 참여

불교는 세속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성철 스님은 세속과 거리를 둔 채 홀독한 수행과 계율을 지키며 살았다. 불자들과 국민들은 그런 스님의 모습을 존경하며 가슴 속 깊이 선사적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사회 현실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간화선사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4차 학술 포럼이 열렸다. 발제에 나선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은둔자적 모습과 달리 스님은 현대 학문을 섭렵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

다. 순 우리말 법어를 발표하는 등 항상 세간을 예의주시했다”고 밝혔다.

성철 스님은 해의 신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익혔는데,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사회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각 종 사회적 의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실이다. 불교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종단과 스님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님들 중에는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지만 아직까지 불교계 안팎에서는 스님들의 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해 11월 1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범안)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은 한국 대표 불교가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전통문화 계승’(49.3%)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은 각각 1.4%와 4.7%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종교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응답은 1% 이하로 더욱 낮았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70.7%는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스님의 역할로 ‘수행에 전념’을 꼽아 사회지도자보다는 수행자로서의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전 속 부처님의 정치 의식

해마다 선거철이면 불교계는 후보자들의 불교 관련 공약을 검증하고, 불교 발전

을 위한 각종 공약을 요구해 왔다. 특히 헌정권에서 사찰 땅 밟기와 각종 훼손 사건 등 종교편향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불자 정치인, 불자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갈증은 더욱 심화됐다.

그러나 후보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다는 불교 공약에 집중하다보니 불교계는 선거철이면 정치에 쉽게 영향을 받는 ‘표방’으로 인식돼 왔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는 여당의 노태우 후보에 대한 총성 경쟁까지 일어난 ‘봉은사 사태’가 발생했다.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는 상무대 80억 배리 사건이 터지면서 종단 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탁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선거철이면 스님들과 정치계와의 결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달리 정치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선에 앞둔 올해는 한국 대표 불교가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전통문화 계승’(49.3%)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은 각각 1.4%와 4.7%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종교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응답은 1% 이하로 더욱 낮았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70.7%는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스님의 역할로 ‘수행에 전념’을 꼽아 사회지도자보다는 수행자로서의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님의 정치 인식은 <최초자경> <전륜왕사자후경> <구라탄두경> <육방예경> 등 다양한 경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장야함경>은 부처님의 정치 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은 <장야함> 2권 제2경 <유행경>에서 칠불쇠법을 설하면서 나라와 불법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칠불쇠법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약하는 일곱 가지 법이다. 칠불쇠법에서는

“패거리를 만들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 “아무 덕이 없으면서 자랑하지 말라”, “악한 사람과 짝하지 말라” 등을 설하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무리를 지으면 국가적으로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덕이 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악한 사람과 짝을 지으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의미다.

부처님은 “아난다여, 칠불쇠법 가운데 한 가지만 잘 지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일곱 가지를 다 지키면 그 나라는 더욱 안전하고 강성해 누구의 침략을 받아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했다.

또한 국왕이 지녀야 할 10가지의 덕을 제시한 <증일야함> 제42권 <결품품(結禁品)>은 통치자의 품격과 자세, 정책의 원리에 관해 말하고 있다.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전에 담긴 교훈 속에서 정치 발전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해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2006년 불교평론에 기고한 ‘17대 대선 불교계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서 불교가 불국 정토를 구현한다는 교리에 따른 불교의 역할을 주문했다.

손해재 교수는 “불자들은 불자 후보라든가, 불교 공약을 따져보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종교가 사회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정치도 살아 있는 중생으로 봐야한다”

###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장 범문 스님

“이번 선거에 앞서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때 불교가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장 범문 스님(사진)은 올해 불교가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로서의 본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혼란한 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과 불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범문 스님은 또 최근 일부 스님들의 발언이 성과적으로 치우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스님은 “정파와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종교적 입장에서 치우침 없는 내용



이러면 정치 현실에 대해 스님들도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교 분리가 종교가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무관심한 영역에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와 정부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보고 중생 제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문 스님은 “정치 발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을 위해 베푸는 정치가 중요하다면 불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불교적 언어와 방법론 ‘중요’

### 열린선원장 범현 스님

열린선원장 범현 스님(사진)은 스님들의 정치적 발언에 반대하지 않지만 ‘불교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범현 스님은 “교단이나 승려가 정당의 당원의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승려라도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은 가능하다”며 “문제는 불교적 언어와 방법론에 기반한 철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율상 정치 개입은 명백한 과계 사유



지만 불교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정치 발전을 위해 종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범현 스님은 “수행자는 수행자의 길을 가야한다”며 “그러나 현실적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시민사회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할 것”

### 정용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올해 격동의 시기가 될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올해 치러질 두 차례의 선거에서 불교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정용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사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존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집행위원장과 불교시민사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집행위원장은 불교의 세속화와 권력화를 경계하면서 잘못된 정치 현상에 대한 꾸짖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집행위원장은 “과거에는 후보자들의 불교 공약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불교가 특정 정치 권력과 밀착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이 세상을 걱정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 종 정 청 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종정실 경료실장 : 석법진)

<b>원로회 회장</b> 석홍섭	<b>원로부회장</b> 석무공	<b>원로부회장</b> 석만월	<b>승정원장</b> 석원정	<b>총회 의장</b> 석법일	<b>기획원장</b> 석법상	<b>호계원장</b> 석월오	<b>감사원장</b> 석동원
<b>총무원</b>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승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b>호법원</b>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운오	<b>감찰원</b>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지혜	<b>문화원</b>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b>사정원</b> 사정원장 석현중	<b>포교원</b>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룡	<b>교육원</b> 교육원장 석무겸 부원장 석운오 부원장 석대명 부원장 석법오	
<b>교구총무원</b> 대구총무원장 석청명 김해총무원장 석청해 거제총무원장 석덕운 창원총무원장 석법일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미산총무원장 석법경	<b>비구니원</b> 원로회장 석효각 원장 석청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승현 석도현 석해안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석법오 석해명 석연하 석대명 석승룡 석법인 석법문 석경민 석정진 석청진 석효인 석여일	<b>중앙위원회</b>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교육위원장 능오 김원렬					

## 범패, 육효, 학인모집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반영판 사진 3매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범율법제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한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